

지역 매 아리



정읍시, 오늘부터 착한가격업소 28개소 대상 집중 위생소독 실시

정읍시가 11일부터 15일까지 지역 내 착한 가격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위생소독(살충, 살균, 탈취)을 실시한다.

정읍시가 11일부터 15일까지 지역 내 착한 가격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위생소독(살충, 살균, 탈취)을 실시한다.

또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착한가격업소의 위생 상태를 매일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착한가격업소를 많이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안마실축제 홍보 '집중'

부안군 기획감사담당관실 직원들이 제7회 부안마실축제 성공 개최를 위한 홍보 활동에 나섰다.

이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실 직원 10여명은 10일 익산역과 원광대, 중앙시장 등 익산지역 주요 거점을 찾아 제7회 부안마실축제 홍보 팸플릿과 어깨띠를 활용해 축제를 알리고 많은 관광객들이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특히 제7회 부안마실축제 공식 포스터를 활용해 제작한 웃을 입고 홍보활동에 나서 익산시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와 함께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오는 17일 광주광역시를 찾아 제7회 부안마실축제 2차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관외지역 홍보 강화를 통해 많은 관광객들이 부안마실축제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중추 부안군 기획감사담당관은 "제7회 부안마실축제는 5월, 부안으로 떠나는 일상 속 소풍"을 주제로 오는 5월 4~6일 매창공원을 주경사로 부안군 전역에서 열린다"며 "부안의 역사와 문화, 전통, 관광자원, 농특산품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명품 축제에 많은 분들이 편하게 찾아 힐링하고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시재생 사업의 첫 신호탄

정읍시, 시기 어울림플랫폼 기공식 가져 원도심 활성화·주민 삶의 질 개선 기대

정읍시가 10일 시기동(옛 금강모텔)에서 정읍 시기 어울림플랫폼(행복주택) 기공식을 가졌다.

기공식에는 유진섭 시장을 비롯해 최나삼 시의회 의장과 임정수 LH전북 지역본부장, 도시재생 주민협의체와 원도심 내 상인회 등 약 250여명이 참석했다.

시와 LH가 협업해 추진하는 어울림플랫폼은 총사업비 36억원(정읍시 15.5, LH 20.5)이 투입돼 네트워크센터(180㎡)와 행복주택(20세대)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유진섭 시장은 "어울림플랫폼은 오랫동안 준비와 계획 기간을 가진 도시재생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첫 신호탄"이라며 "앞으로 숲 문

화관과 샘고을 떡·어울림 플랫폼, 쌍화차 커뮤니티라운지, 문화예술허브센터, 수성 복합청사개발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후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면 원도심이 변화하는 모습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 과정에서 지역의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을 세심하게 살펴 우리시민의 맞춤형 도시재생을 실현 하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전행사로 정읍 시립농악단의 길놀이와 비나리 축하공연이 펼쳐져 기공식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켰다.

고창향토자원 이용한 기업 맞춤형 제품 개발 '총력'

베리앤바이오식품, 관내 3개 참여기업 선정

자체개발한 제조기술 선정된 기업에 이전 계획

(제)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이사장 유기상 고창군수)가 고창 향토 자원을 이용한 기업 맞춤형 제품 개발을 통해 관내 식품 기업과 농가의 소득 증대를 꾀한다.

(제)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가 10일 2019년 복분자 소재를 활용한 기업 맞춤형 제품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오복농산영농조합법인(대표 박계영), 고창동막골영농조합법인(대표 임우주), 하루에(대표 이세벽) 등 3개 기업을 참여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지난해에도 당도병 환자를 위한 '당죽 플러스', 복분자를 활용한 매운 '불폭탄 복분자잼', 복분자와 도라지를 이용한 어린이용 '참수네 홍도라지 산초사', 복분자와 홍삼을 이용한 건강기능식품 '홍삼 베리' 등 10개 제품을 상품화했다.

이밖에 연구소는 개발제품 관내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해외 시장 판로개척에도 노력했다.

연구소 이사장 유기상 고창군수는 "기업 맞춤형 제품 개발을 통해 연구소와 고창군 식품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며 "보다 전문성 있는 연구를 통해 지역 농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시보건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위한 고당교실 큰 호응

정읍시보건소가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고혈압·당뇨교실(이하 고당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고당교실은 고혈압과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을 주제로 지역주민에게 질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운동요법과 식이요법을 안내하는 프로그램이다.

각 분야별 전문가가 강사로 나서 지역 주요 사망 원인으로 꼽히는 심뇌혈관질환의 선형 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리 요령 등을 듣고 있다.

관련해 10일 진행된 고당교실에서는 정읍아산병원 성주미 임상영양사가 고혈압 당뇨질환자의 식이요법에 대해 교육했다. 교육에서는 참가자가 식품모형을 활용해 자신의 질환에 맞는 식사를 만들었다. 또 건강수명 증가를 위한 영양관리와 식습관 개선 교육도 함께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정읍시보건소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고당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 참가자는 "스스로 식단을 관리해 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당 교실은 고혈압과 당뇨 질환자 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방문보건팀(☎530-6002)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안군과 GAP 인증을 받은 관내 5개 RPC가 지난 9일 부안군청 3층 회의실에서 '천년의 숨씨' 육성 및 판매촉진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식을 개최했다.

명품 부안쌀 '천년의 숨씨' 전국으로!

부안군 - 5개 RPC, 업무협력 협약식 개최

부안군과 GAP 인증을 받은 관내 5개 RPC(부안농협, 부안주안농협, 계화농협, 동진미곡협동처리장, 라이스프라자)는 지난 9일 부안군청 3층 회의실에서 명품 부안쌀 '천년의 숨씨' 육성 및 판매촉진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식을 개최했다.

부안군과 5개 RPC는 이번 협약 체결로 고품질 천년의 숨씨 계약 재배 관리와 생산기반시설 지원, 판매촉진, 마케팅 활동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천년의 숨씨의 안정적인 판매가격 유지를 위한 거대처 저가판매 지양과 RPC별 판매 가격 단일화 노력, RPC별 원료곡 순환판매 상호 실시를 약속했다.

또 천년의 숨씨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공동 협력과 각종 사업 확대 지원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향후 부안쌀의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RPC 통합을 추진함에 상호 적극협조·노력하기로 했다.

부안군은 이번 협약에 따라 부안쌀 천년의 숨씨를 전국 최고의 브랜드로 육성하고 판매물량 원료곡을 확보하기 위한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감소해 전반적으로 쌀 시장이 축소되고 있고 전국적 수준의 브랜드의 생존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현실"이라며 "행정과 RPC와의 협업을 통해 명품 부안쌀 천년의 숨씨가 소비자에게 인정받는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전북한우육종협동조합, 출산율 높이기 맞춘

저출생 시대, 각종 대책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읍시와 전북한우육종협동조합(대표 한양수)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관련해 양 기관은 10일 '출산축하 한우선물 후원 약정식'을 갖고, 시에서 출산하는 가정의 산모에게 산후조리물 한우 국거리와 미역을 기증한다고 밝혔다.

양측에 따르면 시청과 읍면동에 출생 신고 시 '출산축하 한우선물' 수취용 개인정보(수취자의 주소와 성명, 전화번호) 제공 동의를 하면 다음 달 초에 택배로 일괄 배송된다.

협동조합 한양수 대표는 "갈수록 낮아지는 출산율로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었다면서 "출산율 향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조합원들의 의견

을 거쳐 1년에 약 1천500만원을 기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북한우육종협동조합은 2018년 1월에 한우사육 30여 농가가 조합을 결성해 서로 공동구매를 하고 있다. 또 북면에 정읍한우 판매장도 운영하고 있다. 판매장에서는 정읍에서 사육한 질 좋은 한우를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호응이 높다. 지난해에는 40여원의 매출을 올렸다.

한편 시는 인구 늘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장려금 지급 등 다양한 출산장려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출생신고 시 산모와 출산아동에게 맞는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하여 안내하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Advertisement for Mulberry Wine featuring various bottles and gift sets. Text includes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and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